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효과 '톡톡'

사업시작 1년만에 도내 59곳 지원·9곳 도내 이전 추진... IT·SW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이 관련 기업 유치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미래부로부터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주관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작 1년 만에 도내 기업 59곳을 지원함과 동시에, 도외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사 이전은 물론 자회사 설립과 연구소 설치, 공장설립 등 총 9건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디아이티엔지는 해당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한 버섯재배 시설 관리 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지난해 23일 익산에 착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이 회사는 총 3,000평의 규모에 약 30억 원을 투자해 향후 10명 이상의 현지 인력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출액 2,600억원 가량의 경기도 성남 소재 (주)크루셀텍 역시 해당 사업의 오픈랩 활용과 기술개발참여를 계기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바이오펜터'를 오는 29일 연다.

(주)크루셀텍은 미래 주력 사업으로 가축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스마트 헬스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지난 2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대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도내 기업과 착수했다. 이 밖에도 농업용 드론과 SW, 사물인터넷 분야 3개 유망 기업이 도내에 동지를 틀었으며, 지난 2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통해 신성장보통산업(15년 기준 매출액 485억원)이 현재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으로써, 전라북도도 전주시는 전자부품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전국에 유일의 농생명 특화 IT·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도 이성호 미래산업과장은 "IT·SW 산업 여건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IT·SW는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며 "IT·SW기업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유치해 도내 IT·SW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여름방학 독서·체험 프로그램 '풍성'

도교육청·교육지원청·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독서와 체험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문화회관 등이 여름방학 기간 독서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도교육청은 26일 도내 고3 학생 4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 우립중에서 제5회 대입 수시 모의면접캠프를 운영한다.

28일에는 고교생 독서동아리 회원 160명이 참여해 유명 작가 4명을 초청, 질문하고 토론하는 인문학 캠프가 1박 2일간 진행된다.

이공계 고교생을 위한 대학 연구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리 가는 연구실' 프로그램도 있다.

또 전북과학교육원도 여름방학을 맞아 25일부터 일주일 간 초등 3~중 3년을 대상으로 창의인성을 갖춘 리더십 기르기를 주제로 과학원리, 우주 탄생, 별자리, 생활

로봇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 교육지원청의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은 8월1~5일 초 5~중 2년을 대상으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고, 가아급 바이올린 워크숍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8월6일부터는 토요일 수영교실도 가동된다.

익산 마한교육문화회관도 8월1일부터 2주간 동안 은빛소리 플루트 등 22개 프로그램, 초·중학생 43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또 30일 충북 옥천 정지용문학관으로 떠나는 가족 단위 독서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있다.

군산교육문화회관도 8월9일부터 여름방학 도서관학교를 연다. 쿠키 클래스 등 26개 프로그램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안 전북해양수련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 해양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바이오뷰티산업 집중육성

도내 기관 기술 활용 친환경인프라 갖춘 남원 중심으로

전북도가 화장품 등 바이오뷰티산업 육성에 두 팔을 걷는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역 감정을 살린 전북형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바이오뷰티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이는 한류 등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이 10조원을 넘어선 데다 최근 정부가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등 뷰티 관련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전주대농생명융합기술원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이 갖고 있는 바이오산업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뷰티산업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인프라를 갖춘 남원 중심으로 바이오뷰티산업이 이뤄진다.

남원에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있고, 노암산업단지에는 화장품 기업들의 집적화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리산권에는 소재가 되는 허브 등 수많은 천연물 등이 있다.

이형규 도 정부부지사는 "전북은 연구개발특구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농생명 분야의 강점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해 새로운 전북형 바이오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FTA 피해직불금 신청 29일 마감

전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농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겠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은 FTA 협정으로 폐업을 권장해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로, 올해는 당근·노지포도·시설 포도·블루베리 등 4개 품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9월에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11월에 사업비를 지급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정부, 추경 11조 포함 28조 이상 돈 풀다

기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6조 투입 국세 많이 걷힐 전망... 지자체에 3조7000억원 배분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인 6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3조7000억원을 배분한다. 또 국제 상황에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총 28조원 이상의 돈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주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 편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조선업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 합정, 군함 등 선박 61척(1000억원)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2000억원(4만9000명) 규모의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핵심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적 상태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직 지원, 전직 훈련, 장년 인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조선업종이 밀집해 있는 6개 지역에 한시적 일자리 9000개를 제공하고 재취업 알선을 위한 조선업 회

망센터를 운영한다.

청년(4000억원)과 취약계층(1000억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저소득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1000억원)와 긴급복지(2000억원)도 지원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전기차(644억원)·수소차(15억원) 충전소 보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80억원) 등을 추진한다.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도 5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2조 3000억원 배정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상속한정승인공고

전주지방법원

◇심판

사건 2016년단504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1. 이장로(461117-*****)

주소: 전북 임실군 운암면 선거1길 13-8

2. 임양임(540305-*****)

주소: 전북 임실군 운암면 선거1길 13-8

피상속인 망 이성복(721223-*****)

2015. 2. 7.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2길 13-8, 406호(중화산동 2가)

주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이성복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6. 6. 7.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일체없음

나. 유체동산: 현금 300,000원

2. 소극재산

채무: 정확한 채무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2016. 7. 14. 판사 허운범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